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해 주세요”

포천리더스클럽, 誠金 100萬원 전달

포천리더스클럽(회장 박일서)은 9월4일 오후6시 포천신문사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포천지역 각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의 모임인 포천리더스클럽은 2005년에 창립해 그동안 포천사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가게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단체로 알려졌다.

이날 양주승 포천리더스클럽 회장은 포천신문사 최호열 대표이사에게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감사패가 없어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데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승 회장은 “포천리더스클럽은 사람의 집짓기 행사,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은 물론 포천시가 발전하는 통기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성군수의 지방자치단체 경영내용을 담은 책 50권을 구입해



포천리더스클럽은 9월4일 오후6시 포천신문사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포천시청 과장급 이상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등 포천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천리더스클럽은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대 임회동 회장, 2대 김인만 회장, 3대 박일서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해왔으며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권신원 ▶ 김인만 ▶ 김중국 ▶ 김창균 ▶ 박일서 ▶ 양주승 ▶ 양호식 ▶ 윤영복 ▶ 이상갑 ▶ 이수성 ▶ 임희동 ▶ 지현준 ▶ 최호열 ▶ 황성택 ▶ 홍순팔 (가나다순)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봉사하는 동문회 위상 강화

조성인 포천중·일고총동문회장 100만원 기탁

포천중·일고총동문회 조성인 회장인 임기 5개월을 남겨두고 9월5일 오후5시30분 동문회 사무실에서 매월 20만원씩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조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포천중·일고 총동문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생활속의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왔으며 특히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오는 9월28일 개최 예정인 동문의 체육대회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과 함께 하는 자선행사는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기증품 등 접수하고 있다.

이날 포천신문사 최

두열 전무이사에게 성금을 기탁한 조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포천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동문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조성인(왼쪽) 포천중·일고총동문회장이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에게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성금·물품 전달 격려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活性化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된 성금과 물품을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전달에는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이보용 위원장과 포천신문 최두열 전무이사, 육영희 이장희 회장, 박해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김광본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이은미 주부명

예기자단 이사, 김미숙 주부명예기자 등이 참석해 성금 및 쌀과 양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내 용은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5켤레 등이다. 쌀은 소흘농협에서 원가조 판매했고 현금은 각계각층에서 기탁했으며 양말은 김포양말 류인선 대표가 기탁한 것이다.

이날 불우이웃돕기 전달식에 참



자녀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형삼씨 맥을 방문해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이연년 할머니, 이보용 자원위원장)

석한 이보용 포천신문 자문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전달하는 보람 있는 하루였다”며 “포천신문사가 밝은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일 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독거노인 이연년 할머니 맥을 방문해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이연년 할머니, 이보용 자원위원장)

독거노인 박영자 할머니 맥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박해지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이보용 자원위원장)



이들 셋과 어렵게 살고 있는 김계연씨는 앞다 내리고 있어 기쁘게 소식을 전해준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김미숙 주부명예기자, 기선초 교무부장, 맨 앞 김계연씨 자녀들)



독거노인 이소순 할머니 맥을 방문해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이보용 자원위원장, 이소순 할머니,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독거노인 박창호 할머니 맥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박해지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박창호 할머니, 이보용 자원위원장)



물로 살고 계시는 고순석 할머니 맥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박해지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최두열 전무이사, 이혜영 참수면 총무담당, 김광본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용 자원위원장)



남편과 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어렵게 살고 있는 안옥례씨 맥을 방문해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이보용 자원위원장, 안옥례씨, 최두열 전무이사, 김미숙 주부명예기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조문준씨 맥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이보용 자원위원장, 조문준씨, 박해지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이혜영 참수면 총무담당)



독거노인 박희자 할머니 맥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박희자 할머니, 박해지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이보용 자원위원장)



생활편이 어려운 이경순 할머니 맥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이형희 포천시 이코리아 회장, 박해지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이경순 할머니, 동내주인, 최두열 전무이사, 이보용 자원위원장, 포천시(이코리아) 총무)



간강이 좋지 않은 독거노인 이경애 할머니 맥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이경애 할머니, 동내주인, 박해지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이경애 할머니, 이보용 자원위원장,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최두열 전무이사)



칸네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는 송상복 할머니 맥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이보용 자원위원장, 송상복 할머니, 최두열 전무이사, 김미숙 주부명예기자)



칸네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는 류인섭 할머니 맥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은 최로부터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박해지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동내주인, 이보용 자원위원장)



하리디스크 원자로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김순애 씨 자택을 방문해 성금 및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최로부터 육영희 이장희 회장, 김순애 씨, 이보용 포천신문 자원위원장)

추천! 이야기 한마당 로마가 로마인 이유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장

로마인들은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세계의 승자가 되어 천년 제국을 이룩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책을 통해 이 질문을 던지는데, 결국,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했던 로마시민들의 삶이, 바로 로마제국의 번영의 열쇠였다고 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령한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시민권을 개방하고 그 대표자를 원로원에 흡수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고대 로마인이 후세에 남긴 진정한 유산은 제국의 유적들이 아니라, 제도와 개방성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마저도 결코 적이 미워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했으며, 그랬기에 승자를 제외하곤, 적을 정복하여 말살시킨 적이 거의 없이,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 경제, 문화, 정치가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주목한 로마의 힘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원칙을 지키고, 약자를 배려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야말로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첫 단추가 아닐까요?

(손세용 목사)
(문의 011-342-5834)

웃음 넘치는 세상 만들기 ⑧

아가리를 벌려라

아가리? 하면 모두 웃어 버린다. 입이라는 고운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가리라 함은 더 큰 효과를 느끼기 때문이다.

입을 벌려라 웃을 수 있는데 입을 벌리세요? 하면 쓴웃음이 절로 나오지만 지금부터 아가리를 벌리는 연습을 해 보세요! 하면 웃음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세수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왕이면 웃으며 봐야 하는데 우리 웃는 데 너무 인색하다. 세수할 때 거울 보며 간단한 근육 풀기 운동을 하면 훨씬 부드러운 움직임이 느껴지게 된다. 얼굴을 가지고 간단하게 “가위 바위 보”를 해보자.

실제로 하자나? 입으로 “가위 바위 보”하고 소리 지르는 분도 있다. 하지만 ‘가위’는 입 모양을 완전히 찌그러 자제로 비뚤어지게 비틀고 눈자위도 같이 찌러보는 형상을 한다. ‘바위’는 입을 무뎠다 목을 쳐들고 주먹 내밀어 보고 눈을 입을 보면서 내려 뜬다. ‘보’는 목을 뒤로하면서 입을 어느 데로 벌리고 눈을 치켜 뜬다.

매일 아침 이런 운동을 7번 정도 한다면 입 관절 주변이나 눈이나 목 골고루 운동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그 효과로 목 주름도 같이 개선되어짐을 알게 된다.

한편 웃으면 650개의 근육 중 23개 근육과 얼굴 근육 80 개중 15개의 안면 근육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한다. 위와 같은 행동을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짝을 지어서 놀이처럼 해보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행동 하나에 웃음이 폭발하는 지 그 힘은 정말 대단하다.

시원한 마저 느낀다는 말씀에 힘이 나서 다시 한번 하세요 하면 웃음비드가 따로 없다. 운동 삼아 웃을 삼아 같이 해 가는 행위들이 자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웃음치료를 하는 동안 초등 학교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 “정말 좋아요”,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하면 더 없이 좋을 거 같아 열심히 배워서 나누어야겠어요” 하는 말씀에 감사함을 느끼게 했다. 웃음이 주는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갈 때면 가슴 뿌듯한 마음이 더해 감을 알게 했다.



김순오 웃음치료사
문의 : 018-222-1790

慶

포천중 개교 60주년 기념

2008 포천중 · 일고 총동문 한마음축제

祝

아름다운가게포천점과 함께하는 자선행사 및 Re-coming Festival

한마음축제

- ♥재학생 사물놀이, 관악부 연주
- ♥장학금, 학교발전기금 및 연구기금 전달
- ♥효차, 효부, 의인 등 동문효행상 시상
- ♥축산발전을 위한 유승태 릴레이식 송아지 전달
- ♥기별대항 체육대회 및 레크레이션
- ♥동문 장기자랑 및 행운권추첨

가을이 익어가는 추억의 계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중한 인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반월산 밑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포천중 · 일고등학교!

이 가을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선 · 후배동문 모두 모여 동심으로 돌아가 훈훈한 정 마음껏 나누어 봅시다.

특히 금년은 반세기가 넘도록 포천교육의 중심이 돼 온 우리의 모교 포천중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은 해로서 지난 60년의 긴 역사를 더듬어 보고 미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만남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동문가족 및 학부모 등 시민여러분의 동참도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아름다운가게 포천점과 함께하는 자선행사

기증물품 수집 및 판매를 통한 자선기금 기부

- * 자선기증품 및 한마음축제를 위한 찬조와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 * 찬조금 접수 : 농협225047-51-093050
- 예금주 박권빈
- * 기증품 및 상품 접수 : ☎031-535-8336
- 011-9791-8800 전 형 중

● 일시 : 2008년 9월 28일(마지막 일요일) 09:00 ~ 17:30

● 장소 : 포천일고(구 포천중고) 교정(우천시 모교체육관)

포천중 · 일고등학교 총 동문회 회장 조성인 올림

포천중 · 일고 총동문회 장학회 이사장

Tel: (031)535-8336 Fax: (031)535-8234 홈페이지 http://www.ipocheon.co.kr